

# 石油大國으로 浮上하는 이라크

**지난** 30년이상 사우디아라비아는 中東석유를 대표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OPEC(석유수출국)내에서는 13개 회원국의 일원으로 단지 할포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우디는 단독으로 세계石油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상태 혹은 불균형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우디는 세계石油의 정상자리를 넘보는 강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만약 페르시아만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이라크가 새로운 석유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石油가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아랍권에서 정치세력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때 이라크는 原油증산을 통한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군사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과의 8년에 걸친 소모전으로 이라크 石油생산은 장기간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우여곡절끝에 지난 8월 20일 이란·이라크 양국이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페르시아만 전쟁이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라크는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매장량 개발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石油 매장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아직까지 미발견된 유전만해도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이라크는 지금까지 확인된 石油매장량이 약 1천억배럴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690억배럴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며,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美國의 石油매장량 보다는 4배가량 큰 것이다(표-1 참조).

또한 80년 가을 이란·이라크전 발발과 함께 대부분 철

〈표-1〉 주요 산유국별 확인매장량

(단위 : 10억배럴)

國 別 (상위10개국)	計
1. 사우디아라비아	169.5*
2. 이라크	100.0
3. 쿠웨이트	94.5*
4. 이란	92.8
5. 아부다비	92.2
6. 소련	59.0
7. 베네수엘라	56.3
8. 멕시코	48.6
9. 美國	25.3
10. 리비아	21.0
計	887.3

수했던 외국기업들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자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에 뛰어들 체비를 갖추고 있다.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산유대국으로써 이라크의 부상은 정치적으로나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사우디를 비롯한 모든 OPEC회원국들이 이라크의 추가적인 石油증산에 따른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산유량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을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세계石油 공급과잉에 따른 가솔린 가격하락과 파산율 증가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석유 수요가 이라크의 추가 생산 증가분을 흡수해 주지 못하는 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는 자국의 지하매장량이 石油증산으로 인해 줄어들기 시작하자 자구책으로 매장량이 적은 나이지리아 처럼 목전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유가인상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이라크로써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석유증산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유가하락도 방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평화시에는 막혔던 해상운송로도 열릴 것이고, 신규 정유공장도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라크는 자국의 유전에서 더 많은 원유를 뽑아올려 원유나 정제된 석유제품 형태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세계석유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이란·이라크 종전으로 인해 OPEC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라크가 OPEC의 산유쿼터 시스템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산유량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OPEC가 다시 油價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전후 복구비조달을 위한 石油증산에 따른 油價하락설이 보다 현실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하루 28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알·찰라비 이라크 石油장관은 자국의 생산능력이 하루 400만 배럴이며 이미 개발중인 유전에서 50만 배럴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수년안에 이라크는 하루 7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항만과 송유관 시설을 확충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현재 생산능력을 하루 650만 배럴 규모로 증가시키는 특별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석유시장의 침체와 전쟁 때문에 이러한 확장계획은 연기되어질 것이라고 동 석유장관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회에서 이라크가 전후 복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石油판매 수입을 늘리는 것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라크로서는 국제 油價의 하락여부와 상관없이 매장량을 무기로 막대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이라크가 전쟁기간중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주변 아랍국들에 진 부채는 모두 650억달러, 그밖에 石油시설 등 산업시설 피해액이 80억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역군인 젊은 이들의 씨가 말라 버렸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후 복구사업을 해야 하므로 대산유국이 되고

자 하는 이라크의 꿈이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석유제국을 꿈꾸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란도 하나의 뛰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양국가간의 전쟁도 내면적으로 보면 끝난것이 아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 石油수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라크는 팽팽한 긴장감을 늦출수 없다. 표면상으로는 휴전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이라크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만만찮은 이란과 한판승부를 벌이게 될 것이다.

1979년 혁명이 일어나기전 팔레비 왕정치하에서 이란은 하루 600만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생산했으며, 이라크는 전쟁전에 하루 최고 350만배럴을 생산하였다. 소모전을 치루면서 양국의 石油생산은 급감하였다. 이라크는 이란 유조선 공격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자국의 유조선도 페르시아만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동맹국인 시리아가 자국 통과 시리아-이라크간 송유관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홍해와 지중해까지 송유관을 통한 石油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더우기 이란의 유전들은 노후되고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앞으로 石油생산량이 일산 4백만 배럴에서 5백만배럴 이상으로 증가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라크는 전만종은 새로운 유전들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석유개발에 서방국가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상이 최근 美國을 방문하여 美國석유 회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록 외국회사들이 이라크 유전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설비 장치 등 구미를 당길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石油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외부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석유판매원이며 세계 최고의 무역업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워졌던 이라크의 석유채굴 역사는 멀리 구약성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피치(Pitch: 원유를 증류시킨 뒤에 남는 검은 찌꺼기) 형태의 기름을 반죽에 섞어 바벨탑과 바빌론 성벽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라크가 본격적으로 원유를 채굴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여년전 이란과 터키 국경 근처의 이라크 북부 키쿠크 지방에서 최초로 유정이 발견되면서 부터이다. 이 유정은

하루 9만배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당시 세계 최대의 유전으로 오늘날 中東의 오일붐을 예고 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그후 수년간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잇단 혁명으로 인한 정국불안은 서방기업들의 이라크 석유산업에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으며 이라크에서 석유를 처음 개발한 “이라크 석유회사”라고 불려졌던 英·佛·美콘소시엄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이라크의 산유량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서 이라크와 서방기업들간에 강한 불신의 벽이 형성돼 이라크는 1960년 산유국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OPEC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가 아닌 바그다드에서 창설하게 된다. 그 이듬해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석유회사의 지분중 99%를 장악하였다.

그후 1970년대까지 이라크 국내 모든 石油생산시설은 국유화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단 한개의 유전도 개발되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국경문제와 관련해 쿠웨이트와 다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북고주의 국가로 비난하는 등 급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1979년 이후에는 아랍권 내에서조차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이미 이라크의 엄청난 원유 매장량이 세상에 알려진 후이기 때문에 많은 석유관계자들이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즉, 브라질의 Petrobras, 프랑스 석유회사, 소련 등 몇몇 새로운 외국회사들이 개발에 이라크 국영석유회를 돕기 위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의 발발로 이러한 합작투자는 중단되었다. 몇개의 새 유전은 전쟁당시 이란군에 의해 불온하게 점령당했다가 후에 다시 되찾기도 했다.

이라크는 엄청난 石油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쪽의

바위산에서부터 건조한 남쪽 사막지대까지 유전지대는 사방에 널려 있어 티그리스강과 나란히 석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정도이다. 심지어 이라크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라크가 잠재 매장량을 측정·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된 무렵부터이다. 그래서 최근 까지 이라크는 이따금씩 새로운 석유매장량 추정치를 발표 하곤 한다.

몇년전 이라크를 탐방한 소련조사단의 비공개 지구물리학 서베이에 따르면, 이라크의 14개유전에서 추가로 발견된 확인매장량은 718억3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이 소련조사단은 전체 가채 매장량이 218억3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30개의 미개발 유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동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결국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확인 매장량은 총 44개 유전에서 약 930억배럴에 이른다. 작년엔 한 서방 석유회사는 이라크의 석유 매장구조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실시, 확인매장량이 1천억배럴 정도라고 추측하였다.

이라크의 최근 하루평균 산유량을 280만 배럴로 잡아도 이러한 추세라면 족히 1백년은 채굴이 가능한 물량이다. 더우기 찰라비 이라크 석유장관의 말에 의하면, 미확인된 매장량도 약 500억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만약 이것이 확인 매장량으로 나타난다면 총 매장량은 1,500억배럴에 이른다. 이만한 매장량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세계의 유가의 등락을 조절하는 생산조절국(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석유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향후 세계유가 향방과 관련, 이라크의 산유정책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 (AWSJ)

## 믿는 마음 지키는 약속

## 다져지는 신뢰사회